

## 특특뉴스

### 설 주요 성수품 13만4천t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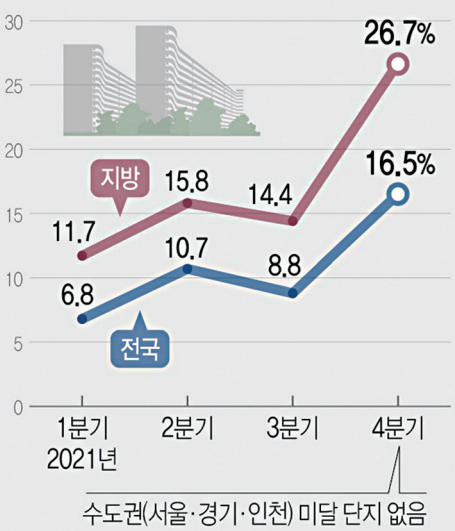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설 연휴 직전인 오는 10~28일에 주요 성수품 약 13만4,000t(톤)을 공급한다. 이 기간 소비자에게 성수품 할인쿠폰을 지원해 체감 물가도 낮출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성수품 공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10일부터 단계적으로 10대 성수품인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를 총 13만4,000t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최근 5년간 성수기 최대 공급량인 각 1만8,700t, 6만7,499t을 공급한다.

계란은 향후 AI 확산에 따른 공급 불안에 대비해 6월 말까지 계란·계란가공품 할당관세를 기존 8~30%에서 0%로 낮추고, 필요할 경우 수입 선관 공급 등 공급안정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 그래픽 경제

### 아파트 청약미달 단지 비중 추이



### 작년 4분기 전국서 미분양 속출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에서 분양된 707개 단지 가운데 미달이 발생한 단지는 총 117곳으로 전체의 16.5%에 달했다.

이는 569개 청약 단지 가운데 50개가 미달된 지난해 3분기(8.8%)에 비해 청약 미달 단지 비중이 2배가량 커진 것이다.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해링턴 플레یس 감삼 3차와 동구 효동동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 포항시 남구 남포항 태양아너스 등이 최종 미달됐다.

# “경제 활성화·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 터”

## 2022년 지역경제인에 듣는다

### 김봉길 광주경영자총협회장

#### 과감한 규제개혁 통한

#### 투자·일자리 확대 모색

#### 중대재해법 보완 입법 추진

####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노력

“지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봉길 광주경영자총협회장은 6일 신년사에서 “지역 기업들이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기업 규모나 업종에 따라 경기 회복 속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소비와 투자에서 뚜렷한 개선의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피해가 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걱정스러운 상황이다”고 지역 경제를 진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 경제는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의 부단한 노력으로 사상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했다”며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속에 우리 기업들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첨단산업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노사 상생의 ‘광주형일자리’로 상징되는 광주글로벌모터스가 공장건설과 함께 신차판매 시장이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기대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인공지능 산업기반이 착실히 다져지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규정 보완입법 추진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 경제현안에 경영계 입장 개선 ▲지역 노동계와 협력 ▲지역 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강화 등을 추진한다.

그는 “중대재해 문제가 처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므로 기업의 책임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과도한 형사처벌규정을 완



화하는 방향으로 보완입법이 마련되도록 전국 경총과 연대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더욱 힘들게 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주52시간제 시행 등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노동 경제

현안에 대해 경영계 입장을 적극 개진해나겠다”고 강조했다.

또 “노사상생형 광주형일자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역 노동계와 적극 협력해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기업CEO 및 인사 관리자의 교류와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노동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지원하고, 회원 배가활동을 통해 경영계의 입장이 널리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준비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중장년의 교육 훈련과 취업 연계 등을 통해 인생 2모작 설계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주 개최하고 있는 ‘금요조찬포럼’이 기업의 혁신 성장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의적절한 주제와 최고 전문가를 초빙해 수준 높은 포럼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애란 기자

##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해단식

### 7개월간 봉사활동·다양한 사회공헌 참여

광주은행은 6일 본점 대강당에서 제 11기 대학생 홍보대사 해단식을 개최했다.

2008년부터 시작해 11기를 맞이한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는 지난해 5월부터 7개월동안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광주은행 브랜드 홍보와 유스(Youth)고객과의 소통,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등에 참여했으며, SNS와 유튜브를 통해 언택트 시대를 대응하는 온라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대학생 홍보대사들은 결손가정 및 소외계층 방문·토마토 농가·코로나19의료진 응원구미·광주천 푸른산책길만

들기 봉사활동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지역아동센터 금융교육, 대학교 홍보활동 등 총 35회의 다양한 사회공헌 및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해단식에서는 대학생 홍보대사들의 활동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고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수료증을 비롯한 우수팀, 우수 홍보대사를 시상했다.

송중욱광주은행장은 “앞으로도 진정성있는 금융지원 및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민과 고객님들께 인생의 금융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강



광주은행은 6일 본점 대강당에서 제11기 대학생 홍보대사 해단식을 개최했다.

/광주은행 제공

화해 나가겠다”며 “더불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및 장학금 지원, 지역 인재 채용 등에 앞장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현재 총 350명의

대학생 홍보대사 수료자를 배출했으며, 오는 3월, 대학생 홍보대사 12기를 모집할 예정이다.

/황애란 기자

hotelthestar.com

## 천년의빛 영광 자연과 어우러진 곳에서 최상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더 아름답게 빛나는 오늘을 더 스타에서 함께하세요

### HOTEL THE STAR

레스토랑/바

로비

카페

객실

웨딩홀

무대

웨딩 / 돌잔치 / 각종모임 / 기업행사 예약문의 010-3627-5003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74 TEL. 061) 350-7900